

사수 vs 저지... 여야 명운 건 혈투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의혹 대부분 해소... 여론 호의적 변화 민주, 팩트 체크 집중...한국당, 사모펀드 등 의혹 정조준

조국 인사청문회 6일 개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 한인 6일 국적으로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6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를 사수하기 위한 민주당과 임명 저지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견곤일척의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6일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조국 사수'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임명 전 청문회 개최'와 '가족 증인 불가' 등 두 가지 요구를 모두 관철한 셈으로,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큰 상처 없이 임명에 이를 수 있도록 '엄호'하는 데 당력을 쏟을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무난히 소

명해 여론이 호의적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판단, 이 여세를 몰아 청문회 역시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6일 재송부할 때까지의 기간에 당은 최대한 조 후보자를 잘 지켜나가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지휘할 적임자라는 것을 최대한 부각하며 정당성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조 후보자가 가진 정책적 역량을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이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무차별 난타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히 사실관계를 따지는 전략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의혹 차단은 물론 기존 의혹에 대한 '팩트 체크'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의 질의 시간

을 활용해 조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야당의 의혹 제기기에 대해 스스로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방침이다. 조 후보자가 진정성 있게 해당 의혹을 직접 해명하는 것이 국민적 설득력이 더 크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야당이 허위 의혹을 제기하거나, 위법·탈법적 방법을 통한 폭로 등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거론하는 등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측면 지원 사격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언론을 통해 워낙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방어하는데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는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까지는 조 후보자가 피고 발인으로서 수사를 받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 진전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분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

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자칫 협직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조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압박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동양대 교수로 근무하는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씨의 검찰소환 조사도 압박했다는 관측이 나는 점도 한국당의 전의를 돋우는 대목이다. 따라서 한국당은 청문회에서 응동락원과 딸의 입학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에 공격의 칼날을 정조준할 방침이다.

청문회장에는 그동안 언론과 청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과 자료들이 총동원 될 전망이다. 당 일각에서는 청문회장에서 조 후보자로부터 '모른다',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답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끌어내고도 해도 대국민 여론전을 위해 나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국-미얀마 3대 경협 방향 제시

문 대통령 경협단지 기공식 참석...신도시 개발 협력 등 담야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양곤에서 '한·미얀마, 상생과 번영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개최된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의 한국 측 경제사절단과 민·세 부통령을 비롯한 미얀마 주요 부처 장관과 기업인 250여 명 등 총 4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에 대한 양국 기업 및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고조시켜 경제협력 산단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양국 상생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미얀마는 2011년 민주화 및 경제개방 이후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 중국·아세안·인도 등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매년 6~7%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아시아의 '미래 시장'이다.

미얀마와의 교역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한국은 중국, 싱가포르 등에 이어 미얀마의 제6위 투자국이다. 현재에는 봉제업체 120여 개를 비롯해 에너지·건설·금융서비스·소매 등 20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청와대는 "한·미얀마 경제협력산단은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잠재력에 비해 진출 여건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미얀마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된다"고 밝혔다.

양국 주야양내에 들어서는 '한·미얀마 경제협력산단'은 2024년까지 총 1천300억 원을 들여 225만㎡ 부지에 조성된다.

미얀마 정부와 LH, 글로벌 세아가 공동으로 출자를 조성하고, 우리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투입해 도로·전력 등 외부 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취약한 인프라로 미얀마 진출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문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 계기에 설치하기로 한 '코리아 테스크'는 미얀마 정부 내 한국기업 전담지원 창구 역할을 하며 향후 산단 입주 기업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윈윈서비스 센터 기능을 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서 "한·미얀마 경제협력산단"은 양국 정부의 협업으로 구체적인 결실을 본 모범 사례로, 미얀마 정부의 협조에 사의를 표한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의 산업단지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듯 미얀마의 경제성장을 이끌 전진기지인 '한·미얀마 경제협력산단'은 '한강의 기적'을 '양곤강의 기적'으로 잇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 인프라사업이 건설·금융·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경제협력산단과 같이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개척해 나가기를 당부했다.

동시에 정부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협력펀드,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등을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공식에 이어 열린 '한·미얀마 비즈니스포럼'에서 ▲ 개발 협력 공을 통한 미얀마 산업발전 기반 구축 ▲ 우정의 다리·달라 신도시 개발 등 기반시설 분야 협력 및 기업진출 지원 ▲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및 소비재 분야 협력 등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는' 경제 등 3대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미얀마 지속가능개발계획'은 2018년 12월에 발표된 2030년까지의 미얀마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으로 '평화와 안정', '번영과 파트너십', '사람과 지구'의 3대 축으로 구성됐다.

이날 기공식과 비즈니스포럼에서는 경제협력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 인력조달 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LH,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9개 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조국 임명' 찬반 격차 일주일만에 15.3%P→5.4%P

리얼미터 조사... 찬성 53.4% vs 반대 45.7%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국민 과반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지만, 찬성과 반대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3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51.5%가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6.1%였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반대 응답은 2.8%포인트 감소했고, 찬성 응답은 3.8%포인트 증가했다.

찬반 격차는 5.4%포인트로 오차범위 이내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는 반대 54.5%, 찬성 39.2%로 찬반 격차가 15.3%포인트였다.

찬반 격차는 이후 2차 조사(지난달 30일)에서 12.0%포인트(반대 54.3%, 찬성 42.3%)로 줄었고, 이번 조사에서는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이번 조사는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2일) 다음날 이뤄진 것으로, 기자간담회를 시청했다는 응답자(찬성 53.4% vs 반대 45.7%)에서는 찬성이 7.7%포인트 높았다.

미시청 응답자(찬성 35.6% vs 반대 60.0%)의 경우 반대가 24.4%포인트 높았다.

/연합뉴스

반대 응답은 대구·경북(57.4%), 서울(57.3%), 부산·울산·경남(53.0%), 대전·세종·충청(52.8%), 60대 이상(57.2%), 50대(52.5%), 20대(52.1%), 남성(53.9%), 보수층(78.5%), 중도층(54.4%), 자유한국당 지지층(96.5%), 바른미래당(83.6%) 지지층, 무당층(62.3%)에서 절반을 넘겨나 다수였다.

찬성 응답은 광주·전라(59.1%), 30대(58.8%), 진보층(75.8%),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7.1%), 정의당 지지층(66.0%)에서 다수이거나 대다수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당정,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을 논의한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 성과 달성을 위한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공정경제 관련 법안 시행령 등 하위법령 중 기업 지배구조 개선, 경제적 약자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해 추진 방안을 정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기회 좋음.
- 토지** ▶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 광주 광산구 삼가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병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근린시설** ▶ 전남 목포시 명륜동 토지 1131㎡(342.128평) 건물 : 7617.71㎡(2304.367평)
지하3층 지상8층 **감정가 : 54억6천5백만원 최저가 : (70%) 38억2천5백5십만원**
- 근린주택** ▶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토지 : 224㎡(67.8평) 건물 : 264.27㎡(79.9평)
지상2층 **감정가 : 4억6천2백만원 최저가 : (70%) 3억2천3백5십만원**
- 다가구(원룸)** ▶ 전남 화순군 동면 백운리 토지 : 1582㎡(478.6평) 건물 : 298.92㎡(90.4평)
창고, 공장, 근린시설 적합 **감정가 : 3억6천1백만원 최저가 : (56%) 2억 2백2십만원**
- 다가구(원룸)** ▶ 광주 북구 풍향동 767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70%) 4억7천4백만원**
- 주택** ▶ 광주 남구 백운동 토지 : 225.5㎡(68.214평) 건물 : 243.77㎡(73.74평)
감정가 : 3억1백3십만원 최저가 : (70%) 2억1천9십만원
- 아파트** ▶ 광주 서구 금호동 쌍용여가 55평형 **감정가 : 8억3천5백만원 최저가 : (70%) 5억8천4백5십만원**
- 아파트** ▶ 광주 서구 풍암동 에스케이뷰 56평형 **감정가 : 8억2천만원 최저가 : (70%) 5억7천4백만원**
- 오피스텔** ▶ 광주 서구 치평동 로잔티움파크 78평형 **감정가 : 4억4천1백만원 최저가 : (70%) 3억 8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